

보 도 자 료

보도

2020. 7. 31(금) 조간부터

배포

2020. 7. 30(목)

책임자

생명·연금연구실
김규동 실장(3775-9049)

작성자

강성호 연구위원(3775-9033)

홍보담당

변철성 수석담당역(3775-9115)

총 3매

보험연구원, 「보험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」 이슈보고서 발간

- ☐ 보험연구원(원장 안철경)의 강성호 연구위원·정인영 연구원은 『보험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』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
- ☐ 본 연구는 산업간 연관성이 높아 타 산업의 일자리 유발에도 긍정적인 보험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를 분석하고, 일자리창출에 있어 보험산업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함
 -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시 공공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, 경제 충격 이후엔 장기적이고 시장 친화적 관점에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의 활성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- ☐ 보험산업은 타 산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고 설계사 등 판매조직이 보험산업 성장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음
 - 보험산업은 자동차, 의료/건강, ICT산업 등 다른 산업과 높은 연관성을 갖고 있어 이들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
 - 특히, 설계사 등 판매조직은 이러한 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

- 고용유발효과*를 살펴본 결과, 보험산업은 제조업, 일반금융(비보험) 등 다른 산업에 비해 그 효과가 크고, 특히 다른 산업의 일자리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

* 고용유발효과는 해당 산업에서 10억 원의 매출(생산)이 발생할 경우 유발되는 총 고용자 수를 의미하며, 직접 및 간접효과로 구분됨. '직접효과'는 특정 산업의 판매(생산) 증가 시 해당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고용유발효과를, '간접효과'는 특정 산업의 판매(생산) 증가 시 다른 산업(유관산업)에서 발생하는 고용유발효과를 의미함.

- 산업별* 고용유발효과는 제조업 4.9명, 일반금융 5.6명, 금융보조 7.3명인데 반해 보험산업은 14.8명으로 보험산업의 고용유발효과가 가장 높았음(<표 1> 참조)

* 산업의 구분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(부속표 중 소분류)를 활용하여 농림수산, 제조업, 비금융서비스, 일반금융, 보험산업, 금융보조의 6개 산업유형으로 재분류함

- 특히 보험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간접 고용유발효과(간접효과)가 커 유관 산업의 고용을 유발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됨

〈표 1〉 산업별 고용유발계수

(단위: 명/10억 원)

구분	농림수산업	제조업	서비스			
			비금융	일반금융	보험산업	금융보조*
직접효과	1.6	3.0	8.6	3.4	5.0	5.2
간접효과	2.3	1.9	0.8	2.1	9.9	2.1
총효과	4.0	4.9	9.4	5.6	14.8	7.3

주) 금융보조*는 '금융/보험보조서비스'를 의미하며, 여기에는 설계사 등이 포함되며, 산업연관 분석 시 보험산업과 분리하여 분석됨

□ 보험산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(9.9명)를 산업별로 보면 비금융서비스¹⁾ 5.85명, 금융보조서비스 2.94명²⁾, 제조업 0.64명의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남(<표 2> 참조)

* 다만, 코로나19 미반영, 보험산업을 세분화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³⁾

- 특히, 인슈어테크와 건강관리서비스는 IT산업과 보건/의료의 고용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보험산업의 인슈어테크 활성화와 건강관리서비스 확대가 일자리창출에 긍정적일 수 있음

〈표 2〉 산업별 간접 고용유발계수 행렬

(단위: 명/10억 원)

구분		농림수산업	제조업	서비스			
				비금융	일반금융	보험산업	금융보조
농림수산업		-	0.05	0.02	0.01	0.02	0.01
제조업		0.85	-	0.58	0.20	0.64	0.18
서비스	비금융	1.39	1.78	-	1.79	5.85	1.68
	일반금융	0.10	0.07	0.11	-	0.42	0.19
	보험산업	-0.02	0.02	0.03	0.01	-	0.03
	금융보조	-0.01	0.02	0.03	0.12	2.94	-
간접효과 계		2.3	1.9	0.8	2.1	9.9	2.1

주) <표 2>는 <표 1> 산업별 고용유발계수' 표의 간접효과를 산업별로 세분화함

첨부 : 이슈보고서 “보험산업의 일자리창출 효과”. 끝.

👁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<http://www.kiri.or.kr>

1) '투입산출표의 생산자가격 기본부문'에 총 106개 비금융서비스 항목이 있는데, 이를 주요 항목으로 구분해 보면 부동산/임대, IT/교통/통신, 음식/숙박업, 보건/의료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
 2) 보험산업의 간접 고용유발효과가 '설계사로 구성된 금융보조서비스' 보다 '비금융서비스'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산업별 규모의 차이에서 유추할 수 있음. 즉, 금융보조서비스는 비금융서비스에 비해 1.4%(총투입계 기준)에 불과함
 3) 즉, 산업연관표 상 보험산업에는 공제업도 포함되어 있으며, 고용창출 효과 외에 부가가치유발, 생산유발효과 등 다른 효과들을 고려한 산업별 종합분석이 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